

밀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한국불교 최초로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 봉안된 밀교의 양부만다라.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 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합리 방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총지, 총종,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지종은 지난 12월12일 한국불교 최초로 밀교의 양부만다라를 본산 총지사에 봉안하였다. 양부만다라 조성은 종단 최대의 숙원 불사로서 승속일체의 대원력과 7년간의 정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양부만다라의 봉안이 종단의 입장에서 밀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종단의 대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통해 사바세계를 불보살의 만다라 세상으로 펼쳐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총지종은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노인휴양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불우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 등의 대사회복지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만다라의 의미

만다라(曼荼羅)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본질(本質)·정수(精髓)를 얻다'는 뜻이다. 즉, 만다라는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밀교에서 만다라는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와 그것을 추구하는 보살과 그들의 무수한 권속들이 모인 장엄한 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는 만다라를 '운원구족(輪圓具足)'이라 해석하여 부처의 자내증(自內證), 즉 자기의 마음 속에서 깨달은 진리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는 깨달음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바로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한다.

한국불교 최초 양부만다라 봉안 사회복지 실천·교화활동 의미

만다라는 우주삼라만상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다. 수천 수백에 이르는 불보살의 존상(尊像)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기도 하다. 인간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양한 인간군상(人間群像)은 만다라의 제불보살(諸佛菩薩)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총지종은 이 우주삼라만상의 한 축인 사바중생의 세계를 만다라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만다라의 세상으로 열여 나가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의 교화방편에 있다.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렵고 외로운 사람에게 아미타부처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본 종단은 사회복지제 제일의 실천 덕목과 교화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만다라 봉안의 진정한 의미요 종교 본래의 모습이다.

주요 산하기관

- ◊총리원 : 중앙 총무행정기관
- ◊중앙총의회 : 종단 입법 및 의결기구
- ◊사감원 : 종단 감사기관
- ◊교구청 : 지역대표기구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교구)
- ◊기로원 : 원로 퇴임스승 봉양기관
- ◊수련원 : 수련 및 휴양기관
- ◊연구기관 : 법장원, 밀교연구소
- ◊교육기관 : 중앙교육원, 총지불교대학, 중립동해중학교
- ◊언론기관 : 총지총보사
- ◊법인 :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 ◊부설법인 :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각종 의결기구 : 원의회, 인사관리위원회, 전담건설위원회, 종정자문위원회, 중립학교이사회, 재단법인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이사회.

내 마음을 만다라 세상으로

총지종 창종이념 총지종 약사

중생구제·호국불교 72년 원정대종사가 창종



◊총령 특장대종사



◊총리원장 법공대종사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에 밀교가 흥왕하였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승유억불로 인하여 특히 밀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 명맥은 통불교(通佛敎) 속에 서남아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신종 밀교를 표방하며 밀교중흥의 길을 열었으니 바로 밀교 총지종의 창종이다. 개조이신 종조 원정 대종사는 창종 이념을 중생구제와 호국불교에 두었다. 해방이후 민생(民生)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실의와 좌절,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구국도생(救國度生)의 길은 오직 밀교의 정법(正法)을 펼치는 데 있음을 대오각성하시고 정통밀교의 창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호국과 중생구제는 곧 종조 원정 대종사의 대비원(大悲願)이었으며, 총지종의 창종은 한국밀교중흥의 서곡이었다.



◊스승과 교도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

주요 불사일정

새해불공(새해 첫 1주간), 종조탄신일(양1.29), 월초불공(매월 초 1주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양2.19~4.8), 춘계강공회(매년 4월중순), 연등회(음4.8),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양5.28~7.15), 종조멸도절(양9.8), 추계강공회(매년 10월중), 창교절(양12.24)

| 사업명 |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광주 법행사 현공발사 | 2003년 5월 | 광주 법행사 | 사원신속안공에 따른 전담현공발사 병행 | |
| 여름청소년수련대회 | 2003년 7월 (2박3일간) | 충북 괴산 수련원 | 종립학교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수행체험행사 | |
| 여름어린이 수련대회 | 2003년 8월 (2박3일간) | 충북 괴산 수련원 | 종단 어린이의 심신단련 및 수행체험행사 | |
| 경로법회 | 2003년 8월 (2박3일간) | 충북 괴산 수련원 | 종단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개최. 휴양 및 어용을 위한 시간 마련. | |
| 은빛축제 | 2003년 10월 | 총지종 본산 총지사 경내 |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개최. 다양한 행사 마련. | |
| 노인휴양소 개설 시설 운영 계획 | 2003년 10월 | 경북 경주시 소재 | 노인들을 위한 휴양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 |
| 전주 총국사 현공발사 | 2003년 10월 | 전주 총국사 | 노인들을 위한 휴양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 |

만다라 친견공덕

여래의 꽃이루며 깨달음 성취

- ◎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만다라에 들어가면 모든 악취(惡趣)가 말하여 진다.
- ◎ 이 만다라를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하면 모든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
- ◎ 일체의 바라는 바를 두루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상(無相)의 환희와 안락과 희열이 일어난다.
- ◎ 악취(惡趣)에 드는 자를 바른길로 인도(引導)한다.
- ◎ 이 만다라를 친견하고 관상(觀想)하면 여래의 과(果)를 이루며, 깨달음의 성취를 속히 이루게 된다. 《금강정일체여래진실설대승현증대교왕경》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1
홈페이지: www.chongji.or.kr

교리와 수행체계

총지종은 밀교의 대승적 이념에 근거하여 밀교를 표방하고 또 민중 속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가불교의 가치를 내걸고 창종된 종단이다. 위로는 법신 비로자나불교의 일체를 지향하여 심오한 교리와 고도의 수행법으로 즉신성불을 염원하면서 아래로는 중생 속에서 중생과 더불어 고통을 헤쳐 나가는 진정된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종단이 총지종이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총지종은 정통밀교의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과 체계가 엄격하게 정비된 비밀의계(秘密儀軌)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으로 삼아 때와 장소·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준제비밀법(准提秘密法)에 의한 삼밀수행법이며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진언이라는 '올마니반메홀'의 염송으로 이루어지는

삼밀수행법이 대표적

마음실상 찾는데 촛점

일상의 신행이 주를 이룬다. 총지종의 개조인 원정대종사는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음을 갈파하면서 실천불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자 어려운 밀교의 수행법을 일반대중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간소화했다. 이러한 총지종의 이념은 편의보발과 함께 도심에 현대화된 사원을 건설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불문(佛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의례와 의식을 극히 간소화하고 밀교의 수행법에 의하여 오직 마음의 실상을 찾는 데 그 수행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총지종의 수행법은 법사(法師)나 스님에게만 의지하여 염불하고 불공드리지는 의의적인 기복의 불교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스스로 밀교의 비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증득할 수 있는 실천불교이다. 이러한 점들이 타종단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지종은 비밀밀교와 재가불교라는 뚜렷한 특색을 지니면서 대승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밀업국토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창종된 밀교종단으로서 향후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모습의 종단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소의경전

-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대일경(大日經))
- 금강정경(金剛頂經)
-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소의경전과법구

진언염송과 만다라 친견으로 소원성취·즉신성불 이루소서

만다라 친견은 언제든지 서울 총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 친견과 함께 진언염송수행을 체험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곧 만다라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